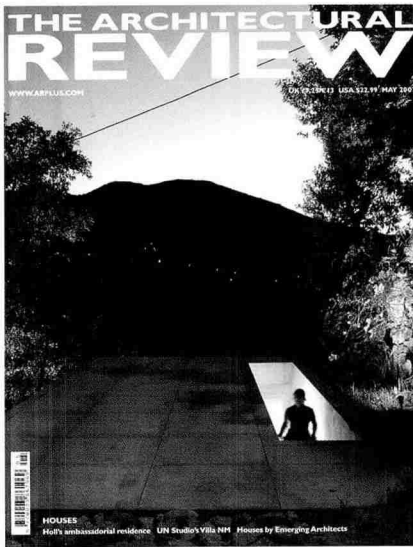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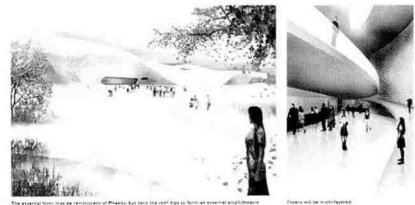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지의 2007년 5월호의 주제어는 주택이다.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쓰는 알바로 시자 2세의 주택 계획안의 인상적인 진입구를 잡아낸 표지에서부터, 다른 잡지들이나 심지어 Review 지 자체로도 수없이 반복했었을 주택 특집과의 개념적 차별을 선언하는 comment와 주택작품들, 그리고 AR Awards for Emerging Architecture 에 참가한 작품 중 참신한 주거작품을 모아놓은 Young House 부문까지 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션을 주택에 할애를 하고 있다. Colin Davies의 저서『20세기 주요 주택(Key Houses of the 20th Century, 2006)』의 21세기적 비전 혹은 승계의 일환으로 건축의 경향을 폭넓은 시각으로 함축하는 시설로서의 주택에 주목하고 있다. 건축과

관련된 주요 뉴스로는 퓨처 시스템의 프라하 도서관 당선안(퓨처시스템의 Jan Kaplicky는 체코 출신이기도 하다.)의 내용과 자하 하디드의 장점을 수혈받아 자신의 본디 장점인 텍토닉에 우회상장시켜 그녀를 2등으로 밀어낸 메카노의 타이완 국립공연예술센터 디자인, 리차드 로저스(공식적으로는 Riverside 경)의 프리츠커상 내정 등이 다뤄지고 있다.

VIEW

메카노, 타이완 국립 공연예술 센터
(Na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현상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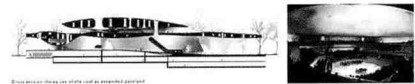
3월말 메카노가 대만 카오슝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국립 공연예술센터의 디자인 현상에 당선자로 선정되었다. 자하 하디드와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된 기요시 다케야마 +Amorphe의 안들을 누르고 메카노의 안은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이다. 자하 하디드의 형태적 힌트에 타공성의 개념을 결합하여 내부와 외부, 벽과 천정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공간에서 비정형적인 공공공간과 적절한 건조환경을 유지하는 디자인을 추구한 것이다.



PERFORMING ART

Mecanoo wins in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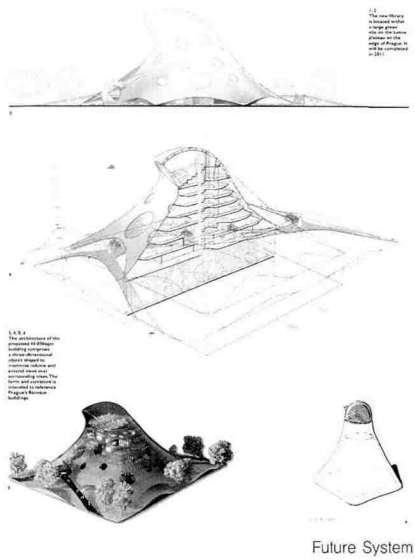
Three out of Merit Mecanoo announced the winner of the Na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design competition in Taipei, Taiwan. The winning design was selected by a jury of 12 members, including architects and critics. The design features a large, curved, cantilevered structure that creates a unique interior space. The building is designed to be a multi-functional space, capable of hosting a variety of performances and events. The design also takes into account the local climate and culture, creating a space that is both modern and traditional.



Mecanoo

퓨처시스템, 프라하 신 국립도서관
(New National Library) 현상 당선

1968년 소위 '프라하의 봄'에 조국인 체코를 떠나 영국에 체류한 Jan Kaplicky의 퓨처시스템이 프라하의 신 국립도서관 디자인 현상에 당선되었다. 자하 하디드와 에바 쥐리크나가 포함된 다양한 취향의 심사진은



유사한 블롭 디자인 중에서 이전 경험과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퓨처시스템의 디자인에 손을 들어주었다.

■ Houses

클리쉐가 괜히 클리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부함 속에는 그것이 진부하게 되기까지 유효한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다. 주택이 새로운 건축적 아이디어의 산실이라는 인식은 이미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폴린 데이비스가 주장하듯 개별 건축사가 디자인한 주택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미할지 모르나 건축의 역사의 응축으로 독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라이트나 코르뷔제 아스플렌트, 알토가 베렌스, 루티엔스, 브와시, 그리고 매킨토시의 흐름을 확장하여 모더니즘 건축을 열어젖히는 가운데 그들의 주택은 항상 화제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이후에도 샤로운의 쉬민케 주택, 아달베르토 리베토/쿠지오 말라파르트의 말라파르트 주택, 버민스터 풀러의 위치타 주택, 알리슨 앤 피터 스미슨의 서전 주택, 벤츄리의 바나 벤츄리 주택, 기쇼 구로카와의 캡슐호텔, 그리고 UN 스튜디오의 뫼비우스 주택까지, 혁신적 주택 디자인은 그것들의 디자이너에 앞서 그들을 소개하고 건축계를 자극시켰다. Review 지의 이번 기사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으로서 스티븐 홀과 UN 스튜디오, 알바로 라이테 시자, 제이미 포버트, 위크샵 하코모리 안트라사스트,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 롱 힘멜블라우의 최근 주택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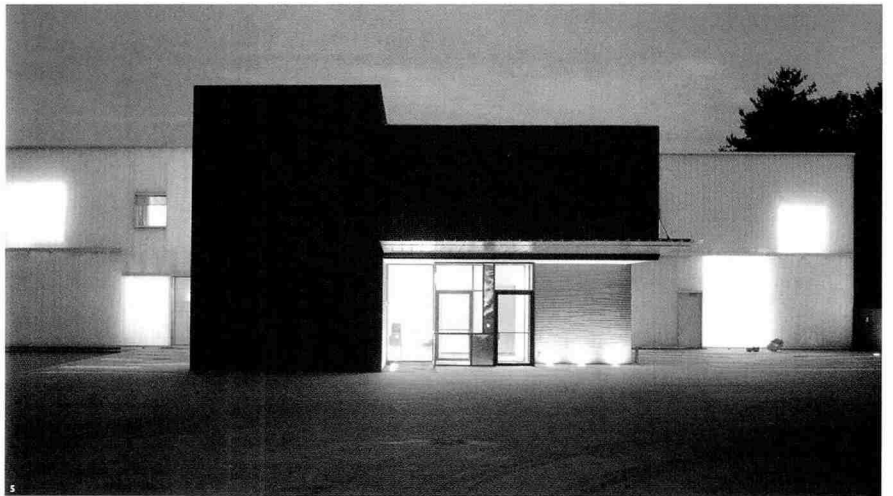
개하고 있다.

■ 스위스 프로토콜 (스위스 대사 공관/ 워싱턴 DC/ 스티븐 홀)

외교를 위한 건축물의 특성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분리되기 시작했다. 1931년 루티엔스가 워싱턴에 영국 대사를 위한 컨트리하우스를 시점으로 하여, 루이스 칸과 스미슨의 루안다와 브라질리아에서의 계획안, 최근에는 알리스 앤 모리슨, 스노헤타, 렘 콜하스의 디자인에 이르면서 대사관 건축은 그 독자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스티븐 홀의 스위스 대사관 공관역시 독특한 조합을 보여

주고 있다. 사적인 공간을 포함하는 동시에 문화적 중심, 비즈니스 센터, 공적 집회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는 스위스 로컬 건축사와 함께 평평한 석조 기반 위에 다양한 기능들이 결합되어 있는 단일 건물을 계획했다. 전체적으로는 수평의 얇은 석판을 쌓은 듯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는 십자형의 건축 안에서 건축사는 내부의 얼음같은 투과성을 콘크리트 표피를 절개하는 느낌으로 외부로 표출시키고 있다. 구조적 기능을 가진 불투명 유리 패널과 실제 개구부 일부에 걸쳐있는 투명유리, 창문 프레임으로 구성된 유리스킨이 실제 개구부와 다른 방식으로 절개된(콘크리트가 아닌) 입면을 둘러싸면서 물성에 강한



Steven Hall

스티븐 홀의 디자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 입구 측면에 있는 반사를 위한 수공간을 통해 더욱 극적으로 표현된다. 내부 공간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도록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상층부는 주거를 위한 방들이 모여 있다. 스티븐 홀은 현상학자 메틀로폰티의 'in-between(매개)' 개념을 공간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스티븐 홀에게 'in-between'은 개별적 요소들이 그들의 명확성을 잃는 순간과 유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사는 확정적이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그가 인지하는 대사관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사관 공간은 명백히 주택이라는 근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간에 요구되는 사교와 비즈니스, 틀에 박히면서도 동시에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교의 드라마와 수수께끼들로 인해 그 명확성이 약해지고 흐려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 칸은 빛에 지역건축의 특징을 구분하고 구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건축물에서 스티븐 홀은 매개적 진실사이에 있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얼음과도 같은 정적을 만들어 내는 공간과 빛의 주목할 만한 화학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 계단의 거장

(주택/ 포르투갈, Lugar Das

Carvalhinhas/ Alvaro Leite Siza)

부전자전. 거장 건축사인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이 건축사는 자신의 아버지의 건축을 특징짓는 '우아한 침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포르투갈의 북부에 위치한 이 주택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도전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고문에 가까운 대지 경사(평균 30도)와 1억원이 채 안되는 타이트한 예산(77,000유로, 건축과 조경 포함), 상당한 넓이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일반적 주거공간+침실 3개+수영장)에 비해 턱없이 좁고 긴 대지형상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대지가 남측을 바라보며 전면부 경관이 훌륭하다는 것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시자 주니어는 땅을 파거나 캔틸레버로 새로운 지반을 내미는 대신 주택 자체가 지형이 되는 전략을 취했다. 일련의 테라스를 가진 콘크리트 컨테이너 블록을 경사에 맞게 나열하면서 건물 전체가 마치 에셔가 그린 계단 같은 주택을 디자인한 것이다. 이 '계단주택'에는 외부와 내부에 각각 각 블록/실 들을 연결하는 별도의 계단이 자리하고 있는데, 외부의 계단이 반-공적(semi public)인 루트를 형성하는 반면 내부

계단은 다양한 공간들을 연계시키고 있다. 각각의 블록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평지붕은 그 위쪽 블록을 위한 파티오가 되고 있다.(이는 북부 포르투갈의 언덕 주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진입도로서 주벽은 콘크리트로 마감된 주차장과 병커같이 뚫린 입구만이 확인이 가능하다.(표지) 내부공간은 입구로부터 직주 공간-주방, 응접, 거실 공간-침실의 순으로 전개되며, 주요 침실은 주방향으로부터 45도 틀어져 반복가운데 변화감을 만들어 내며, 기능적으로는 드레스 룸과 세탁실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준다. 긴 하강 끝에 정원과 수영장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로부터는 30미터정도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의 결과로 적용된 노출콘크리트(외부)와 흰색과 나무 바닥은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 제한된 재료로 시적인 의미를 추구했던 포르투갈 건축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며, 시자가문의 예의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경우를 위한 모범답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시자 주니어의 이 주택은 어떻게 힘든 조건들 가운데 드라마틱한 건축이 가족 생활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구축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Alvaro Leite Siza

■ 백색 입방체

(주택/ 스페인, Zahora / Alberto Campo Baeza)

이베리아 전통건축의 정수를 현대건축에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가 이번에는 그의 금욕주의의 한계를 조금 더 확장했다. 스페인의 대서양쪽 해변인 리즈에 위치하고 있는 자호라 지역의 이 주택은 하늘을 제외한 모든 주변 조건에 무심하다. 대신에 초점을 내부로 옮겨 격자 형태로 식재한 오렌지나무가 인상적인 파티오에 모든 관심을 투사하고 있다. 온통 흰색으로 덮인 외부와 차폐된 세계 속에서 이 한모금의 길들여진 자연공간은 차라리 비현실적이며, 그래서 눈길을 떼기 어렵게 한다. 8m의 외벽 내부의 주거공간은 전후의 파티오를 연결하는 축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칭을 이루어, 건물의 실재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7m 높이로 높은 지붕아래 주 생활공간과 응접실, 연구 공간은 거의 완벽한 입방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리벽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병합시키고 있으며 낮은 포세는 전후의 파티오로 연장되고 있다. 주방과 욕실, 침실은 외벽과 내부 입방체 사이에 끼어있는 형상이다. 이 건축물에서 대칭은 권위와는 별개로 추상적 완전성에의 극한적인 추구에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사는 이 주택을 일컬어 '영롱하게 구축된 그림자와 음영'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

한 빛의 처리와 주거입방체 뒷면의 좁고 긴 풀장, 그리고 이베리아식의 중정주택은 무어족의 전통의 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흥미로운 단절'을 추구하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 수직적 조각물

(주택/ 미국, Venice / Coop Himmelb(l)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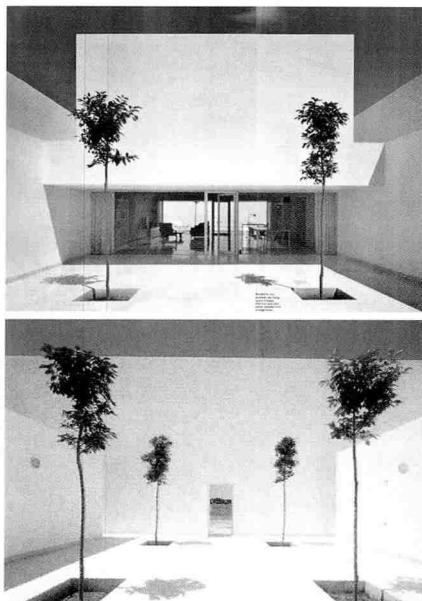
미국에는 유럽과 지명이 같아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들이 착각하게 하는 지역이 꽤 있다. 동명이지(同名異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단 텍사스에 있는 파리가 그렇고, 뉴햄프셔에 있는 베를린이 그렇고, 카즈요 세지마가 최근에 유리 파빌리온을 디자인한 도시 또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옆에 있는 톨레도가 아닌 미국의 톨레도이다. 이제 설명들어갈 콥 힘멜블라우의 주택이 있는 지역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니스'이다.

이 주택 또한 콥 힘멜블라우에게는 '돌아온 탕아'와 같은 작품이다. 기구한 사연이란 이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콥 힘멜블라우가 빅리그로 올라가기 이전 10년의 기간 동안, 울프 프리크스가 쉬들러와 노이트라와 같은 미국 근대주택의 스타들을 추종하고 있던 시기에 미국은 지독한 경기후퇴를 겪고 있었다. 그에 따라 콥 힘멜블라우도 시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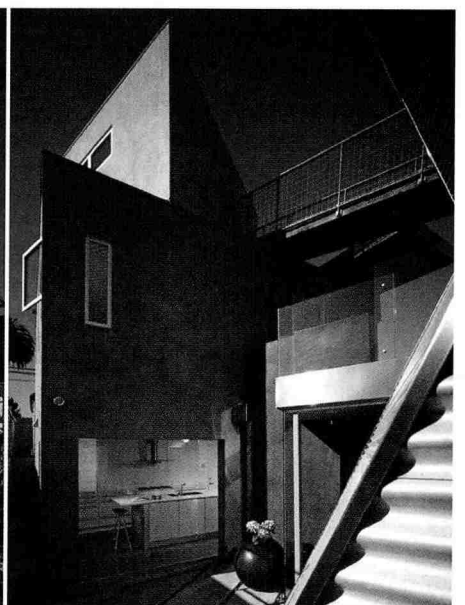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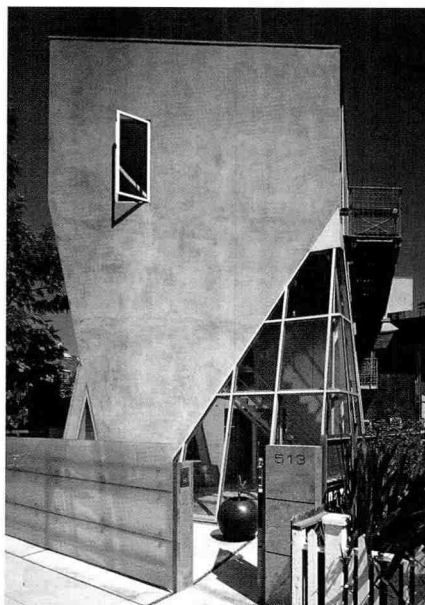
를 보내고 있었는데, 말리부에 있던 오픈하우스 계획이 시공에 들어가기 직전 건축주가 사망함에 따라 좌초되었고 그 시기에 유일하게 실현된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대담한 스펙의 주택계획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공이 너무 복잡하여 계약인과 투자자가 차례로 도산하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급하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콥 힘멜블라우와 이 주택의 가치를 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Virginia Moede와 건축사 Michael Hricak, 계약인 Roland Tso(건축사이기도 하다)에 의해 '재입양'되면서 좌절된 건축사의 비전이 온전히 빛을 보게 되었다.

주택의 외관이 복고풍이다 싶을 정도로 90년대의 콥 힘멜블라우와 닮아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뒤틀린 기하학과 접힌 평면, 충돌하는 매스 같은 건축사가 즐겨 사용했던 어휘들로 가득 찬 이 건물은 급진적인 비엔나 출신의 건축사의 열정을 고스란히 환기시키고 있다. 주택은 크게 두 블럭으로 나뉘며 다리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각각의 레벨에서 기울어진 벽과 유리, 그리고 지붕너머의 짝 짜인 경관들 사이에 연출되는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전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Alberto Campo Baeza



Coop Himmelb(l)au